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장애유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강혜원*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일반대학원

박지연**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장애유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 참여자는 만 2~6세 유아의 가족 16가족(40명)으로, 이 중 실험집단 8가족에게는 총 12회기 즉, 소집단회기 6회, 전체모임 1회, 가정회기 5회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통제집단 8가족에게는 제공하지 않았다.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의 양육효능감 검사 사전-사후 차이점수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실험집단의 부모-아동 상호작용 행동 평가의 사전-사후 변화에 대해서는 종속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유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정도는 통제집단의 변화 정도보다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집단의 아버지들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험집단의 부모와 유아 모두 사전-사후 간 상호작용 행동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종료 12주 후에도 변화된 상호작용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역량강화, 장애유아 부모, 가족지원, 양육효능감, 부모-유아 상호작용

* 제1저자(se7enhw@nate.com)

** 교신저자(jpark@ewha.ac.kr)

I. 서 론

대부분의 장애유아들은 자신의 장애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전에 장애를 가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그들의 경험은 주변 사람들이 가진 장애의 관점과 연관되어 있다(정영숙, 이상복, 2001). 그러므로 비장애유아와 마찬가지로 장애유아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에는 가족, 특히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 연구들은 장애유아의 부모들이 우울과 불안, 분노, 스트레스,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전혜인, 박지연, 2004; Brookman-Frazee & Koegel, 2004). 이러한 장애유아 부모들의 양육스트레스는 비일관적인 양육행동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Norris, 1991).

따라서 장애유아의 부모들에게는 양육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양육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양육부담은 다시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고(이명현, 2003), 부모-유아 간 부정적 상호작용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모-유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는 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양육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Mahoney, Robinson과 Powell(1992)은 반응적인 부모들은 유아의 상호작용에 보조를 맞추고,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며, 유아의 주도를 따른다고 하였다. 긍정적인 호혜적 관계의 발달에서 부모-유아 상호작용이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데는 이견이 없겠으나, 장애유아 부모의 경우 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자연스럽게 반응을 유도하며 기다려주기 보다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유아를 인지적, 사회적, 의사소통적인 면에서 변화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발달지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Norris, 1991).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모-장애유아 간 상호작용이 더욱 자연스럽게 반응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최근까지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선행연구들은 가족지원 실천현장이 가족중심 패러다임으로 초점을 옮겨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만을 중심으로 실행되어 왔다. 외국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중재에 참여한 연구가 있긴 하지만 소수이고(Elder, Valcante, Yarandi, Groce, & Carlton, 2002; Kim, Ashwell, Elder, & Valcante, 2006), 국내연구 역시 주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따른 어머니의 스트레스 감소(정승희, 최성규, 2006; 김관주, 2008)나 아버지의 양육참여 현황을 조사한 연구(이지현, 2007; Kang & Horn, 2007)는 있었으나 아버지가 직접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는 그 참여가 일회적 또는 간헐적인 형태로 제한되거나 내용이 심리에만 중점을 두었다는 아쉬움이 있다(김예리, 2009; 이금섭, 송미화, 2007). 또한 대부분의 가족지원 프로그램들이 중재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어 가족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기 전에 중재가 종료되

었다. 부모-유아의 상호작용은 중재기간 만이 아니라, 중재가 끝난 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재 종료 후에도 중재효과가 지속되는지 알아본 연구들이 그리 많지 않고, 유지를 측정한 연구들도 중재 종료부터 유지까지의 기간이 짧은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위주의 중재를 실시했던 선행연구들과 달리,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중재에 포함시켰고, 가족중심 패러다임에 중점을 두어 부모가 함께 토의하고, 스스로 중재 목표를 결정하며, 중재를 전달하고, 부부가 서로 피드백을 하는 활동들을 통하여 가족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중재 종료 후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장애유아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 실험집단 부모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부모 간에는 양육효능감의 변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은 실험집단 가정의 부모-유아 상호작용 행동을 변화시키는가?
 - 2-1.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전과 후의 실험집단 부모의 유아와의 상호작용 행동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2.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전과 후의 실험집단 유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 행동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3.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 12주 후에도 실험집단의 변화된 부모-유아 상호작용이 유지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 구성은 가정을 개방해야 하는 방문 지원의 성격상 무선표집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선배치하는 형태의 집단구성이 불가능하여 먼저 실험집단을 구성하고 이에 상응하는 통제집단을 구성하였다(표 1).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고, 의료기관에서 장애나 발달지체로 진단받은 만 2~6세 유아의 가족 중 연구자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부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배운 전략을 실행하고, 총 12회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실험집단 8가족과 대기자 통제집단 8가족이다(16쌍의 부부와 실험집단 부부의 자녀

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2권 1호)

8명으로 총 40명).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을 위해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N교회의 협조를 얻어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장애유아 부모 학교’란 이름으로 개설하였고, N교회에 출석중인 장애유아 가족 중 참여를 희망한 2가족과 인터넷 홍보를 통해 연락해 온 6가족으로 실험집단(8가족)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이 교회의 협조를 얻어 실시되기는 하였지만, 실험집단의 모집 요건에 종교를 포함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험에 참여한 가족들의 종교는 다양하였다(실험집단 8가족 중 5가족이 기독교인, 2가족은 무교, 1가족은 어머니만 천주교인). 통제집단의 구성을 위해서는 서울 S병원의 발달장애지원센터와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E기관에 다니고 있는 18명의 장애유아 가족을 모집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기관에서 실시하는 연 1, 2회의 부모교육 외에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는 가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통제집단 구성을 위해 모집한 18가족 중 장애유아의 장애유형, 성별, 연령순으로 변인들을 고려하여 실험집단과 가장 일대일 대응이 잘되는 8가족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통제집단에게는 본 연구가 종료된 후,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에 대한 2시간의 강의와 자료집이 제공되었으며, 추후 실시될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하였다.

2. 실험 기간 및 장소

본 연구를 위한 실험 및 자료 수집은 2010년 2월초부터 8월말까지 약 7개월간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은 총 12회기에 걸쳐 실시되었다. 실험은 연구 참여자 모집, 개별면담 및 사전검사, 프로그램 실행, 사후검사, 추후검사, 자료 분석 및 자료 정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 중 집단회기를 실시한 장소는 서울 N교회의 S홀이며, 집단회기가 운영될 경우 따로 장애유아와 그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여러 가지 장난감, 간식과 함께 탁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부 회기의 경우, 참여 부모들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외부(예; 공원)에서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

가정방문은 주로 거실에서 면담 및 회의, 중재가 이루어졌으며 장애유아가 놀이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부모를 이끌 경우 다른 방으로 이동하여 놀이하기도 하였다.

<표 1> 실험집단(a~h)과 통제집단(a'~h') 가족의 특성

유아 기호	유아특성			아버지특성		어머니특성		가족특성	
	만연령 /성별	장애명*	교육배치	연령	학력	연령	학력	비장애형제	월 수입**
a	6세/남	자폐성장애 (PDD)	통합 어린이집	35	대학원졸	36	대학원졸	남동생1	300- 400
b	4세/남	자폐성장애 (PDD)	통합 어린이집	34	대졸	35	대졸	여동생1	300- 400
c	5세/남	자폐성장애 (PDD-NOS, ADHD)	조기교실	39	대졸	36	대학원졸	여동생1	400 이상
d	5세/남	자폐성장애 (PDD)	통합 어린이집	39	대졸	38	대졸	형1	400 이상
e	3세/여	자폐성장애 (PDD)	어린이집	41	대졸	40	대졸	오빠1, 남동생1	400 이상
f	6세/남	정신지체	통합 어린이집	37	대학원졸	32	대졸	남동생1	300- 400
g	2세/남	자폐성장애 (PDD-NOS)	없음	32	대졸	31	대졸	누나1	200- 300
h	3세/남	자폐성장애 (PDD)	통합 어린이집	41	대졸	39	대졸	쌍둥이1	400 이상
a'	6세/남	자폐성장애 (PDD)	통합 어린이집	35	대학원졸	36	대학원졸	남동생1	300- 400
b'	5세/남	자폐성장애 (PDD)	조기교실	49	대졸	45	대졸	없음	300- 400
c'	6세/남	자폐성장애 (PDD-NOS, ADHD)	통합 어린이집	37	대학원졸	33	대학원졸	없음	400 이상
d'	5세/남	자폐성장애 (PDD)	통합 어린이집	41	대졸	36	대졸	형1	400 이상
e'	3세/여	발달지체	어린이집	39	대졸	31	대졸	여동생1	300- 400
f'	5세/남	정신지체	통합 어린이집	42	대졸	39	대졸	형1	400 이상
g'	4세/남	발달지체	없음	39	대학원졸	40	대졸	형1	400 이상
h'	3세/남	자폐성장애 (PDD)	통합 어린이집	41	대졸	39	대졸	누나1	400 이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장애유형을 기록하였으며, ()안에 진단명을 표기하였음.

** 단위 : 만원

3. 독립변인: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은 부모의 전문성 함양, 자원이용을 돕는 지원, 심리적 지원의 세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세부내용의 구성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지식, 기술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긍정적 양육 지원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Sanders, Mazzucchelli, & Studman, 2004). 또한 부모-유아의 상호작용의 질 개선을 위해 현재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새로운 행동의 모방을 시도하는 상호모방하기(Ingersoll & Gergans, 2007),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아동이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최대화하도록 도움으로써 아동의 발달과 안정을 증진시키는 반응성교수(Mahoney & MacDonald, 2007), 그리고 질 높은 상호작용 지원을 통해 민감하고 수용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반응적 행동지원(최윤희, 이소현, 2007)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문제행동 관리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과 맥락화된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을 포함하였다(Moes & Frea, 2002; Sanders et al., 2004). 둘째, 자원이용을 돕는 지원을 위해 가정방문지원을 통해 자연적 환경지원, 교수적 지원, 정보제공 등으로 부모의 실천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문희원, 박지연, 2008; 박성신, 박지연, 2007; 최윤희, 이소현, 2007; Moes & Frea, 2002; Sanders et al., 2004). 셋째, 심리적 지원을 위해 부부관계개선을 통해 부모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금섭, 송미화, 2007; Sanders et al., 2004). 또한 부모들 간의 집단토의와 활동을 포함하였다(전혜인, 2006). 본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표 2>와 같다.

1) 집단회기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은 12회기(소집단회기 6회, 가정방문 5회, 전체모임 1회)로 구성하였으며 각 회기별 내용은 <표 2>와 같다. 실험집단인 8가정의 부모들은 각 가정의 상황과 스케줄에 따라 두 개의 소집단 즉, 토요일 4가정, 일요일 4가정으로 나누어졌다. 집단회기는 장애유아를 기르는 부모들 간의 교류와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주로 하여 가정방문에서 집단회기의 내용을 양육의 실제적 맥락인 가정에서의 연습에 적용하게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적용기간은 2010년 3월 1주 ~ 5월 4주까지이며 토요일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일요일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에 약 2시간씩 진행되었고, 부모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봉사자들이 장애유아와 비장애형제의 탁아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2>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회기	주제	제목	활동내용	준비물	형식
1	오리엔테이션	New St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퀴즈를 통해 서로와 유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 알기 아동 행동 관찰 방법 소개 	교재 화이트보드, 마커 동영상	소집단
2	환경구성 및 목표설정	우리 가족의 출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적 환경 조성: 환경 조성 피드백 및 구성 비디오 피드백 및 직접관찰 아동의 선호활동 및 강화 선별 상호작용 목표 부모와 함께 설정 	HOME, 사전검사 비디오 교재,	개별 가정
3	문제행동관리하기	우리 아이의 긍정적 변화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회기 시 정한 목표 나눔 긍정적인 관계 개발 전략 소개 긍정적 행동지원 원리 이해 	교재 동영상, 역할극상황자료	소집단
4	실습	우리 아이의 긍정적 변화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동기록표 점검 및 함께 논의 나는 너를 사랑해(긍정적 관계 개발) 긍정적 행동지원 원리의 구체적 실습 가족의 요구에 근거한 정보제공 	디지털 카메라, 교재, 부부상호 점검표	개별 가정
5	반응적 상호작용	우리 엄마아빠가 달라졌어요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토의 및 실천내용 나눔 반응적 상호작용의 실제 소개 비디오 자료 분석 부부끼리 연습해보기 	동영상 역할극 상황 자료 PPT, 교재	소집단
6	실습	우리 엄마아빠가 달라졌어요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주간의 실천 점검 및 피드백 우리 아이의 의사소통 신호, 의도 설명 부모-유아 주도행동, 상호작용 중단 이유 설명 가족의 요구에 근거한 정보제공 	교재 부부상호 점검표, 캠코더	개별 가정
7	실습	우리 엄마아빠가 달라졌어요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를 통한 상호모방하기 실습 반응성 교수 전략 적용하기 반응적 행동지원: 민감성, 반응성, 상호성 가족의 요구에 근거한 정보제공 	교재 부부상호 점검표, 캠코더	개별 가정
8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마음과 마음사이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응적 상호작용 실천소감 및 배우자 칭찬하기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소개 우리가족 강점 찾기 부부토크: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재, 비디오자료,	소집단

<표 2>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프로그램 회기별 내용 (계속)

회기	주제	제목	활동내용	준비물	형식
9	실습 및 변화 인식	마음과 마음사이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적 의사소통훈련 실습 • 부모-유아 긍정적 상호작용 증진 확인 	교재, 캠코더	개별 가정
10	친목	가족의시간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5일 어린이날 야유회 • 레크리에이션 • 선배부모와의 대화 • 부모 간 심층대화 	봉사자 도시락 게임도구	전체
11	친목	가족의시간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폐인 영화 ‘템플 그랜던’ 보기 	스피커, TV	소집단
12	종결	이젠 자신 있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에게 편지쓰기 • 사례 및 소감 발표 • 자조모임 계획 	교재, 편지지, 동영상	소집단

2) 가정방문

부모들은 연구자와 함께 집단회기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상세하게 의논하여 가족들 간의 창의적인 애정표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긍정적인 행동지원으로 문제행동을 다루었으며, 놀이상황을 녹화한 자료를 보고 부부간에 서로 피드백하면서 어떻게 하면 장애유아의 행동 특성에 맞는 반응적인 부모가 되어 장애유아의 발달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연구자가 준비한 놀잇감은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며 시간이나 답에 제한이 없는 장난감으로 하였다. 가정방문 시간은 아버지의 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주로 저녁시간 두 시간을 활용하였고, 스케줄에 융통성을 줌으로써 부모의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전체모임

전체모임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장애유아 가족들이 화합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부모들의 대화를 통한 정서적 지지 및 장애유아들과의 실제적 상호작용들을 통하여 그동안 배운 전략들의 실천을 점검,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장소는 강남구 D공원이었고, 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였다.

4) 기타 지원

(1) 정보 지원

가정방문 시 각 가정의 정보지원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가정방문 시 정보를 제공하였고, 특별히 그 가정에 국한된 내용이 아닌 경우는 정보요청을 하지 않은 가정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장애유아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목록을 제공하고, 프로그램 기간 중 부모님들께 일정기간씩 대여하였다.

(2) 탁아 서비스

집단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현직 특수교사 또는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들이 장애유아와 형제들을 보살피 주었다. 주로 함께 놀이를 하고 간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고, 장애유아들의 분리불안을 줄이기 위해 형제들과 함께 하도록 하였다. 형제들은 서로 어울려 놀며 장애형제들을 끌어들이며 함께 놀이하기도 하였으며, 비장애형제들끼리의 만남은 장애형제를 둔 서로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4. 종속변인 측정 도구

1) 부모의 양육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Gibaud-Wallston & Wandersman(1978)이 개발하고 신숙재(1997)가 수정 보완한 양육효능감 검사(PSOC;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를 사용하였다. 16문항으로 구성된 PSOC는 인지적 차원인 부모효능감과 정서적 차원인 부모의 좌절감 및 불안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6-80점(Cronbach $\alpha = .81$)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장애유아 부모 5명과 유아 특수교사 5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한 후 사용하였다(표 3). 본 연구에서 실시한 PSOC의 신뢰도는 .87이었다.

1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2권 1호)

<표 3> 양육효능감 검사(PSOC) 수정, 보완 내용

번호	수정전	수정후
1	나는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나는 나의 말과 행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2	나는 아이를 돌보는데 있어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이를 능숙하게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나는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4	나는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준이 그 나이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나는 아이가 현재 보이고 있는 행동이 아이의 연령과 발달과정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짜증이 난다.
10	나는 부모로서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낀다.	나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느낀다.
13	나의 흥미와 관심은 부모역할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다.	나는 부모역할보다는 다른 분야에 더 흥미와 관심이 있다.

2) 부모-유아의 상호작용

부모의 상호작용은 자연스러운 놀이장면 10분 동안에 부모가 나타내는 상호작용 행동을 Mahoney(1999)의 어머니행동 평정척도(MBRS; Maternal Behavior Rating Scale)를 사용하여 평정하였다. 부모의 상호작용 행동은 부모의 아동에 대한 반응적 행동, 효율적 행동, 지시적 행동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김정미와 광금주(2006)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결과를 토대로 한 K-MBRS의 ‘반응적 행동 요인’ 6개 항목과 ‘효율적 행동 요인’ 4개 항목 그리고 ‘지시적 행동 요인’ 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각 항목은 5점 Likert 척도로 평가되고, 효율적 행동 요인의 보조와 지시적 행동 요인의 성취지향성, 지시성은 전환점수를 사용하여 합산하였다. 김정미 등(2006)의 연구에서 보고된 신뢰도는 .86이었다.

유아의 상호작용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반응하는 유아의 상호작용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Mahoney(1999)의 아동 행동척도(CBRS; Child Behavior Rating Scales)를 김정미 등(2006)이 타당화한 아동의 행동척도(K-CBR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활동적 행동, 사회적 행동의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정미 등(2006)의 연구에서 보고된 이 도구의 신뢰도는 .81이었다.

5. 실험 설계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검사 대기자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 waitlist control group design)(성태제, 시기자, 2006)를 사용하였다

1) 사전검사

사전검사는 연구 참여자 모집 후 약 2주간 개별가정방문을 통해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고, 부모-아동 상호작용은 부모와의 자연스러운 놀이장면의 관찰 및 비디오녹화를 2회(어머니-유아 1회, 아버지-유아 1회) 실시하여 연구자가 측정하였다. 비디오녹화는 놀이를 시작한 때부터 15분을 촬영하여 그 중 시작 직후 2분을 제외한 그 다음 10분을 평정에 사용하였다. 통제집단의 양육효능감은 동일한 시기에 우편발송 및 관련기관 교사의 협조를 통하여 검사하였다.

2) 중재 실시(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

본 연구의 중재인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은 총 12회기(소집단회기 6회기, 가정방문 5회기, 가족 간 연합을 위한 전체모임 1회기)에 걸쳐 실시되었다.

집단회기는 2주에 한 번씩 2시간에 걸쳐 강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실험집단 8가정(16명)을 토요일 4가정(8명), 일요일 4가정(8명)으로 나누어 소그룹으로 진행하였다. 집단회기에는 긍정적 양육 기술, 긍정적 행동지원에 기초한 문제행동의 기능평가, 문제행동을 관리하는 전략과 일반화, 유지 전략, 반응적 상호작용 전략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소집단 내 활발한 상호작용과 경험공유를 통해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적극적인 공동양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부 간의 갈등 해소 및 관계증진을 위한 요소들이 활동과정 내에 자연스럽게 삽입되어 부부 간의 결속력과 이해가 더욱 증진되게 하였다.

가정방문 5회기는 집단회기 사이에 격주로 2시간씩 실시되었는데 부모의 근황 및 마음을 듣는 경청의 시간, 실천사항 점검, 이전 집단회기의 내용 상기, 가정의 상황과 장애유아의 특성에 맞는 적용방안 및 다음 가정방문까지의 실천사항 의논, 부모가 요청한 정보지원 등으로 진행되었다.

각각의 가족은 연구자와 함께 상호작용 점검 및 현재 가족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개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실천 계획을 세웠으며, 연구자는 각 가족의 실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각 아동에게 적절한 상호작용 중재를 선택하여 가족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중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사후검사

프로그램이 종결된 뒤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양육효능감과 상호작용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프로그램이 진행된 3개월간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 내 사건이나 변화 등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추후검사

중재 종료 12주 후, 실험집단 부모-유아 상호작용행동의 변화가 유지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추후검사를 실시하였다.

6. 평가자 간 일치도 및 사회적 타당도

부모의 상호작용행동(K-MBRS)과 유아의 상호작용 행동(K-CBRS) 측정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의 제1저자와 이 연구의 목적에 대해 모르는 1명의 평가자가 중재 전후의 비디오 자료에서 나타난 각각의 기술들을 채점하였다. 무작위로 선정된 비디오 녹화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두 평가자간 정확한 점수 일치도(평가자간 일치도 = 일치된 문항 / 총문항 × 100)가 K-MBRS는 75%, K-CBRS는 70% 이상 3회 연속 나타나고 '1점차 이내 일치도'가 90% 이상일 때까지 평가자 훈련을 한 후, 전체 자료의 25%에 대해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평가자간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두 평가자 간 '정확한 점수 일치율'은 K-MBRS는 78%, K-CBRS는 77%였다. 그리고 '1점 차 이내 점수 일치도'는 K-MBRS는 98.6%, K-CBRS는 99.8%로 나타났다. kappa계수는 K-MBRS와 K-CBRS 모두 .69였다.

본 연구의 사회적 타당도는 프로그램 실시 후에 중재에 참여한 부모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서를 통해 살펴보았다. 평가 내용은 손유니(2001), 이인숙, 조광순(2005), 최윤희, 이소현(2006)의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만든 <프로그램 평가지>를 사용하였고, 총 12문항 중 10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프로그램 만족도, 프로그램 절차와 방법의 수용가능성,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정도, 일반화에 대한 질문이고(표 4), 2문항은 개방형 질문이었다.

개방형 질문에서 가장 도움을 받은 부분을 정리하면 첫째, 다른 장애유아의 부모들을 만나 소통함으로써 공감대와 위로를 얻고 정보교환도 한 것, 둘째, 장애유아와의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방법을 가정방문을 통해 배우게 되어 실질적으로 아이와의 소통이 증가하였고, 아이의 장애를 수용하고 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 셋째, 부부가 협력하여 아이를 양육하게 된 것 등이었다.

<표 4> 실험집단 부모들의 프로그램 평가 결과

(N=16)

질문문항	평균 점수
1.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6
2. 프로그램 진행방법은 큰 불편 없이 수용 가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4.4
3. 다른 부모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면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요?	4.7
4. 이 프로그램에서 다룬 내용을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4.7
5.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4.3
6.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을 다루는데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4.3
7.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유아 양육에 부부가 더욱 협력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3
8. 프로그램 중 전문가와 부모의 협력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4
9. 이 프로그램은 장애유아의 형제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4.1
10.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4.6

7. 자료 분석

양육효능감 검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전, 후에 실시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토대로 사전-사후검사의 차이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부모-아동 상호작용 행동 평가는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전, 후, 중재가 종료된 지 12주 후에 걸쳐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종속표본 t 검정 (paired- t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든 분석에는 SPSS for Window 12.0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 사전검사 평균은 3.02($SD = .29$), 사후검사 평균은 3.30($SD = .23$)로 평균 .27점($SD = .28$) 증가하였다. 통제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이 3.28($SD = .55$), 사후검사 평균은 3.11($SD = .68$)로 평균 .17($SD = .28$) 감소하였다. 두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정도에서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 = 3.21$).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은 증가하였고,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정도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장애유아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표 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구분	실험집단 ($n=8$)			통제집단 ($n=8$)			t
	사전 $M(SD)$	사후 $M(SD)$	사후-사전차이 $M(SD)$	사전 $M(SD)$	사후 $M(SD)$	사후-사전차이 $M(SD)$	
양육 효능감 (모)	3.02 (.29)	3.30 (.23)	.27 (.28)	3.28 (.55)	3.11 (.68)	-.17 (.28)	3.21**

** $p < .01$

<표 6> 아버지의 양육효능감 변화

구분	실험집단 ($n=8$)			통제집단 ($n=8$)			t
	사전 $M(SD)$	사후 $M(SD)$	사후-사전 차이 $M(SD)$	사전 $M(SD)$	사후 $M(SD)$	사후-사전 차이 $M(SD)$	
양육 효능감(부)	3.18 (.54)	3.46 (.53)	.28 (.43)	3.49 (.38)	3.46 (.46)	-.03 (.25)	1.76

또한,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아버지들은 양육효능감에 있어서 사전검사 평균이 3.18($SD=.54$), 사후검사 평균은 3.46($SD=.53$)으로 평균 .28점($SD=.43$) 증가하였다. 통제집단은 사전검사 평균이 3.49($SD=.38$), 사후검사 평균은 3.46($SD=.46$)으로 평균 .03($SD=.25$) 감소하였다. 두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양육효능감 변화정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76$). 즉, 기술통계상으로 실험집단 아버지들의 양육효능감이 증가하였고 통제집단 아버지들의 양육효능감은 감소하였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2.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부모-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1) 프로그램이 부모의 유아와의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어머니들의 유아와의 상호작용 행동은 사전검사 평균이 2.99($SD=.35$), 사후검사 평균은 4.36($SD=.38$)으로 평균 1.38점($SD=.30$) 증가하였다. 종속표본 t 검정 결과, 실험집단 어머니의 사전-사후 상호작용행동은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13.02$).

실험집단 아버지들의 유아와의 상호작용 행동은 사전검사 평균이 2.44($SD=.56$), 사후검사 평균은 3.98($SD=.64$)로 평균 1.54점($SD=.69$) 증가하였다. 종속표본 t 검정 결과, 실험집단 아버지의 사전-사후 상호작용행동은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6.33$).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부모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아와의 상호작용 행동 변화

구분	사전 $M(SD)$	사후 $M(SD)$	사후-사전차이 $M(SD)$	t
MBRS 모	2.99(.35)	4.36(.38)	1.38(.30)	13.02***
MBRS 부	2.44(.56)	3.98(.64)	1.54(.69)	6.33***

*** $p<.001$

2) 프로그램이 유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장애유아와 어머니 간 상호작용에서 유아의 상호작용 행동은 사전검사 평균이 2.61($SD=.51$), 사후검사 평균은 3.98($SD=.32$)로 평균 1.38점($SD=.63$) 증가하였다. 종속표본 t 검정 결과, 실험집단 사전-사후 유아의 상호작용 행동은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6.18$).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는 아버지와의 상호작용 행동에서 사전검사 평균 2.52($SD=.49$), 사후검사 평균은 3.91($SD=.49$)로 평균 1.39점($SD=.48$) 증가하였다. 종속표본 t 검정 결과, 사전-사후 유아의 상호작용행동은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8.29$).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는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와의 상호작용행동이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표 8> 유아의 부모와의 상호작용 행동 변화

구분	사전 $M(SD)$	사후 $M(SD)$	사후-사전차이 $M(SD)$	t
CBRS 유아-모	2.61(.51)	3.98(.32)	1.38(.63)	6.18***
CBRS 유아-부	2.52(.49)	3.91(.49)	1.39(.48)	8.29***

*** $p<.001$

3) 프로그램 종료 후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유지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장애유아 어머니들의 상호작용 행동은 사후검사 평균이 4.36($SD=.38$), 추후 검사 평균은 4.43($SD=.18$)으로 나타났다. 추후 검사와 사후검사 평균의 차이는 .06($SD=.38$), 유지-사후 차이 정도의 t 값은 .4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장애유아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행동은 사후검사 평균이 3.98($SD=.32$), 추후 검사 평균은 3.93($SD=.46$)으로 나타났다. 추후 검사 평균과 사후검사 평균의 차이는 -.05($SD=.56$), 유지-사후 차이 정도의 t 값은 -.2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9> 부모-유아 상호작용의 유지

구분	사후 M(SD)	유지 M(SD)	유지-사후차이 M(SD)	t
MBRS 모	4.36(.38)	4.43(.18)	.06(.38)	.46
CBRS 유아-모	3.98(.32)	3.93(.46)	-.05(.56)	-.27
MBRS 부	3.98(.64)	4.16(.52)	.18(.74)	.68
CBRS 유아-부	3.91(.49)	3.93(.56)	.02(.50)	.10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장애유아 아버지들의 상호작용 행동은 사후검사 평균이 3.98($SD=.64$), 추후 검사 평균은 4.16($SD=.52$)으로 나타났다. 추후 검사와 사후검사 평균의 차이는 .18($SD=.74$), 유지-사후 차이 정도의 t 값은 .6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 장애유아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낸 상호작용 행동은 사후검사 평균이 3.91($SD=.49$), 추후 검사 평균은 3.93($SD=.56$)으로 나타났다. 추후 검사 평균과 사후검사 평균의 차이는 .02($SD=.50$), 유지-사후 차이 정도의 t 값은 .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와 유아 모두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 12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된 상호작용 행동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 결과,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 실험집단 어머니와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정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차이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것만으로도 매우 동기화되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애유아와 비장애형제에 대한 탁아서비스가 제공되어 부부가 탁아에 대한 염려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대한 만족감이 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참여가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예리, 2009),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자기존중감이 향상되고 양육관련 부담감이 감소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관된다고 할 수 있다(Santos, Fowler, Corso, & Bruns, 2000).

둘째, 실제적으로 부부가 함께 약속을 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주려고 노력한 것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나 애정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머니들이 양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장애유아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및 서비스 스케줄을 모두 소화하는 동시에 가사를 병행해야 하고, 비장애형제들을 돌보는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버지들은 직장생활을 통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정에서는 휴식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아버지의 경우라 하더라도 어머니들에 비해 양육에 쏟는 노력 및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아버지들은 본 연구에 참여하면서 이와 같이 고정화되었던 양육부담을 조금 더 나누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가정방문 회기에 연구자는 부모들과의 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공감적 경청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어머니들은 장애유아와 관련된 일상들, 여러 가지 고민들뿐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에서의 문제들도 이야기하였고 특히 부부가 갈등이 깊은 경우에는 연구자가 중립적 자세로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을 바라기도 하였다. 그러한 경청의 시간은 부모를 심리적으로 지지하여 이후 중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소집단회기와 전체모임을 통하여 어머니들은 활발한 상호작용과 경험공유를 통해 서로를 지지하게 되었다. 부모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가장 도움을 받은 것 중 하나로, 다른 장애유아 부모들을 만나 소통함으로써 공감대와 위로를 얻고 정보교환을 한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가정을 통해 아버지의 역할과 장애유아 양육 경험을 공유한 것에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한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버지들의 양육효능감 변화 정도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실험집단 아버지들 중 일부가 처한 특별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3명의 아버지 중 1명은 가정에서 장애유아를 훈육하던 중 장애유아의 간질이 발생하여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뒤로 자신감을 많이 잃고 소극적인 양육태도를 갖게 되었다. 또 다른 한 가족은 부부갈등이 심각하였고, 다른 한 명은 회사업무가 매우 바빠 주말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프로그램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사건이나 환경으로 인해 일부 아버지들의 양육효능감이 저해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3명의 아버지들은 이러한 방해 요인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 실행해 보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아버지들과 장애유아와의 상호작용 행동이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실험집단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은 증가 폭이 비슷한 반면 통제집단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감소 폭이 아버지보다 훨씬 컸다는 점이다. 이는 장애유아 부모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양육효능감이 감소할 수 있고, 어머니들이 더욱 그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비교해 보면 아버지들의 양육효능감이 더 높는데, 이는 아버지들이 양육에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어머니들이 그만큼 장애유아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기에 자녀에게 보다 민감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좌절과 불안도 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을 부모가 제공받기 전과 후의 부모-유아 상호작용 행동 점수 변화에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의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들은 집단회기에서 여러 부모-유아 상호작용 동영상을 보며 실제로 어떻게 반응적이고 민감하게 자녀를 대할 수 있는지 점검하였는데 이것이 부모의 상호작용 행동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들은 서로의 동영상을 보면서 반응성, 효율성, 지시성에 대해 더욱 실제로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의 놀이방법을 보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가정방문에서 자신의 상호작용 동영상을 연구자와 함께 분석하고, 실제 상황에서 전략을 적용한 후 제공한 피드백이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가 지시적 상호작용을 줄이고 놀이를 함께 즐기는 참여자가 됨에 따라 상호작용 행동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주도성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가정방문 및 부모의 상호작용 전략이 장애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조인경, 2003; Chen & Haney, 1999). 또한 놀이와 상호작용은 긴밀한 관련성이 있어서 자녀와의 놀이방법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 상호작용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Bailey & Wolery, 1992).

셋째, 가정방문회기에서 가족행동계획을 부모주도적으로 세워서 실행한 것이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각 가정은 가족목표를 세우고, 배운 전략을 언제 어디에서 실행할 것인지를 부부가 함께 논의하고 실천하였다. 이는 중재과정을 부모와 함께 계획하고 절차실행의 용이성과 선호를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DiPipi-Hoy & Jitendra, 2004). 예를 들어, a유아의 가족행동계획 목표는 ‘첫째, a가 주도하는 상호작용을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a의 중얼거리는 행동이 감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아버지의 긴장과 염려가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고, b유아의 가족 목표는 ‘첫째, 아버지가 하루에 30분씩 b와 개별적으로 놀아줄 것입니다. 둘째, 부부간에 하루 30분씩

수용적인 대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셋째, b의 반응성이 더욱 좋아지고 발화가 증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였다. 이러한 목표는 가족과 연구자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고 실행하였다.

한편, 부모의 상호작용행동에 반응하는 유아의 상호작용 행동에서도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가 유아에게 반응적이고 민감하게 상호작용을 시도할 때, 유아의 주도성이 발현되고 눈맞춤이나 주의집중, 협력이 늘어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최윤희, 이소현, 2006; Kim & Mahoney, 2004).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12주 후에 실시된 추후검사에서는 부모의 상호작용 행동이 중재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사용하는 반응적인 상호작용은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수록 더욱 발달된다. 부모들은 중재 종료 12주 후에도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게 된 지식과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 경험한 긍정적인 변화가 부모들에게 만족감을 주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까지의 부모참여 연구들은 주로 장애유아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참여하였고, 아버지가 12회기 동안 연구에 꾸준히 참여한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아버지들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것은 어머니들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만족감 그리고 함께 양육방향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버지들은 어머니의 애정표현을 원하고, 어머니들은 실제적인 가사일이나 유아를 돌보는 일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였다(이금섭, 송미화, 2007). 따라서 장애유아 부모들이 더욱 협력하여 양육에 힘쓰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충분한 애정표현을 하여 가정에서 자신을 도구로 생각한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버지는 실질적인 실천으로 가사일이나 양육을 분담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양육지원 프로그램이 장애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부모-유아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장애유아 부모들이 스스로 개별 가정의 상황과 맥락에 맞는 양육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켰음을 의미한다. 장애유아의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전혜인, 2006). 이러한 지원이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연 외, 2005). 따라서 유아기의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적절한 양육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나아가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협력하여 양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제한점과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부모-아동 상호작용 평가(MBRS & CBRIS)는 원칙적으로 1:1의 상황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평가하여야 하지만, 가정방문 상황에서 비장애형제가 함께하는 상황이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실제로 부모가 비장애형제를 따로 분리시켜 일상생활에서 놀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비장애형제가 자연스럽게 촬영된다면 따로 분리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의 주의가 분산되어 실제 1:1 상호작용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종속변인 중 양육효능감에 대해서는 통제집단을 두었으나 부모-유아 상호작용은 통제집단을 두지 못했다. 통제집단을 두었다면 중재효과를 더욱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이 프로그램의 방대한 내용을 12회기 안에 충분히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넷째, MBRS는 원래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된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행동을 측정하는데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어질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8가정만을 대상으로 중재가 실시되었으나 좀 더 참여가정을 확대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전문가는 가정방문 시, 비장애형제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가족에게 조언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 가정방문 시 전문가와 부모의 관심이 모두 장애유아에게 있는 것에 대해 비장애형제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껴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장애형제를 위한 보조 연구자를 확보하거나, 중재 내에 비장애형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을 역량강화하기 위해 양육기술지원, 정보적 지원, 심리적 지원을 실행하였는데 그 중 부부관계를 다루는 내용은 부부갈등이 심각한 가정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특수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전문가들의 팀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관주 (2008). 발달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부부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예리 (2009). 품앗이 부모자조활동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역량강화 및 가족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정미, 곽금주 (2006). 취학 전 아동과 부모간의 상호작용 평가를 위한 K-MBRS와 K-CBR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발달**, 19, 21-37.
- 김정연, 이금진, 김은숙, 김주혜, 박지연 (2005). 의사소통 장애아동을 둔 가족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0(1), 58-81.
- 문희원, 박지연 (2008). 가족이 참여한 긍정적 행동지원이 가정에서의 저녁 일과시간에 발생하는 자폐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특수교육연구**, 8, 97-115.
- 박성신, 박지연 (2007). 장애영유아 가정에 대한 방문지원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어머니와 영유아의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효과. **유아특수교육연구**, 7, 93-110.
- 성태제, 시기자 (2006).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손유니 (2001). 능력강화를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장애아동 부모의 스트레스와 자기 효능감과 대처능력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금섭, 송미화 (2007).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자폐성 장애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3, 477-507.
- 이명현 (2003). 유아특수교육기관의 가족중심 실체의 실행수준에 대한 교사의 자가평가.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 이인숙, 조광순 (2005). 가정과 유치원, 지역사회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이 자폐유아의 바람직한 행동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유아특수교육연구**, 5, 161-190.
- 이지현 (2007). 발달장애아동어머니가 인식한 부부적응에 관한 연구: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자조집단 및 전문가의 지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전혜인 (2006). 부모결연프로그램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및 가족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전혜인, 박지연 (2004). 정서 및 행동장애아동의 가족지원에 관한 문헌고찰: 1995년-2004년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0(4), 117-137.
- 정승희, 최성규 (2006). 장애아동을 둔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언어유형. **언어치료연구**, 15, 163-194.
- 정영숙, 이상복 (2001). 발달장애아동의 장애차원이 가족복지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36(3), 01-23.
- 조인경 (2003). 어머니 인식의 정확성, 유관조절행동과 유아의 인지 발달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34, 169-188.

- 최윤희, 이소현 (2006). 반응적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어머니훈련이 발달지체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언어청각장애연구*, 11(2), 122-145.
- Bailey, D. B., & Wolery, M. (1992). *Teaching infants and preschoolers with disabilities* (2nd ed). New York: Macmillian.
- Brookman-Frazee, L., & Koegel, R. L. (2004). Using parent/clinician partnerships in parent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with autism. *Journal of Positive Behavior Interventions*, 6(4), 195-213.
- Chen, D., & Haney, M. (1999). *Promoting learning through active interaction. Project PLAI. Final Report*. Report: ED432118. 46.
- DiPipi-Hoy, C., & Jitendra, A. (2004). A Parent-delivered intervention to teach purchasing skill to young adult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8, 144-157.
- Elder J. H., Valcante G., Yarandi H., Groce S., & Carlton M. S. (2002). Social Interactions of children with autism in father-child and mother-child play sessions. *Pediatric Nursing*, 28, 573-81.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August). *Developmental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Ingersoll, B., & Gergans, S. (2007). The effects of a parent implemented imitation intervention on spontaneous imitation skills in young children with autism.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28, 163-175.
- Kang, J., & Horn, E. (2007). Understanding urban Korean fathers' participation in the childcare and play activities of thei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유아특수 교육연구*, 7, 225-246.
- Kim, J., & Mahoney, G. (2004). The effects of mother's style of interaction on children's engagement: Implications for using responsive interventions with parent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24, 31-38.
- Kim, S. H., Ashwell, S., Elder J. H., & Valcante, G. (2006). Verbal communication outcomes in children with autism after in-home father training.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0, 139-150.
- Mahoney, G. (1999). *Family/Child Curriculum: A relationship focused approach to parent education/early intervention*. Tallmadge, OH: Family Child Learning Center.
- Mahoney, G., & MacDonald, J. D. (2007). *부모와 교사를 위한 반응성 교수 교육 과정* (김정미 역, 2008). 서울: 학지사.
- Mahoney, G., Robinson, C., & Powell, A. (1992). Focusing on parent-child interaction: The bridge to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8, 5-17.
- Moes, D. R., & Frea, W. D. (2002). Contextualized behavioral support in early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autism and their famili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2, 519-533.

- Norris, J. A. (1991). Providing developmentally appropriate intervention to infants and young children with handicaps.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1*, 21-35.
- Sanders, M. R., Mazzucchelli, T. G., & Studman, L. J. (2004). Stepping stones Triple P: The theoretical basis and development of an evidence-based positive parenting program for families with child who has a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 Developmental Disability, 29*, 265-283.
- Santos, R. M., Fowler, S. A., Corso, R. M., & Bruns, D. A. (2000). Acceptance, acknowledgment, and adaptability: Selecting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appropriate early childhood materials.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32*, 14-22.

Effects of a Parenting Support Program
for Parent Empowerment on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Kang, Hye Won

Ewha Womans University

Park, Ji Yeo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parenting support program for parent empowerment on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child interactions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Sixtee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between the age 2 and 6)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the children were diagnosed as having a disability or developmental delay. Eight families (experimental group) were provided with the program for 7 months while the other 8 families (control group) were not. The concret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ing efficacy of the moth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mothers in the control group whil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fath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ose in the control group. Second,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was found in the interaction behavior of both parents with their children and also in the children's interaction behavior with their par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intervention effect on parent-child interaction behavior was maintained 12 weeks after the program was terminated. Discussions of the result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presented.

Key Words

: empowerment,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family support, parenting efficacy, parent-child interaction

논문 접수: 2011. 01. 26 심사 시작: 2011. 02. 09 게재 확정: 2011. 03. 16

